

衣生活의 過去 現在 未來

Past, Present and Future of Clothing

崔敬子

Kyong Ja Choi

우리 生活의 三大 要素로 衣食住를 든다. 이 세 가지는 옛이나 지금이나 西洋이나 東洋의 구별없이 우리 人間生活에 根本 問題임에 틀림없다.

이 問題를 잘 다룸으로써 우리의 生活은 윤택을 가져올 것으로 안다. 그러나, 등잔밑 불이 어두운 모양으로 너무 우리에게 가깝고 重要한 問題여서 오히려 등한시되는 例가 많다.

過去에 우리 衣生活 또는 住宅 食生活이 그러한 例에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다.

勿論 우리의 衣食住 生活이 그 時代를 따라 環境을 따라서 쉬지 않고 변하고는 있으나 特別한 研究와 發展없이 오늘에 온 것은 유감된 일이며, 우리의 生活水準을 떨어뜨리는 原因이라고 하겠다. 이제 過去의 우리 衣生活을 도리켜 보건대 服裝은 그 時代의 時代相을 말하며 文化를 表現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事實이다.

天然적으로 좋은 기후와 살진 땅을 차지하고 外氣에 자극없이 太平時代를 자랑하는 동안에 非活動의이나마 아름다운 우리 옷은 그 時代에 어느 나라 옷보다 우리에게 잘 맞고 편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차츰 時代는 흐르고 많은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왔다. 이제 우리의 衣生活은 큰 變動을 갖게 되었다. 過去의 우리 衣生活은 마치 뱃사공이 뱃머리의 方向을 잘못 들리어 뜻하지 않은 쪽으로 흐르듯이 우리의 衣生活 方式이 均衡을 잃고 一方的인 發展을 하여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服裝은 外出服이 全部가 아니고, 禮服이 全部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사는 형편대로의 적절한 일옷, 잠옷, 외출옷 等等의 우리 生活에 가장 능률적이고 편하고 경제적이며 아름다와 衣生活을 즐길 수 있는 方法의 服裝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經濟條件이나 생활 環境이나 모든 것을 무시하고 어떤 外觀

的인 것에만 置重하여 外出服 一方的인 發展을 하여 온 感이 있음은 나 혼자만의 느낌은 아니다. 비단이 아무리 싸도 무명보다 더 싸고 질길수가 없으며, 우리가 비오는 거리에나 부엌에서 비단치마 자락이 길게 끌리며, 먼지 많은 땅에 흰 버선을 신는 것은 이 衣生活의 非合理性을 말해주는 一面이다. 外國 婦人들은 처음 한국에 와서는 우리 韓國 婦人들의 옷 잘 입는데 놀라지 않은 분이 적다. 그렇다고 보면 衣生活의 비참한 一面도 또 볼 수 있다.

더우기 白衣 찬양의 우리의 服裝은 倍나 추함을 나타낸다. 고르지 않은 우리의 衣生活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일까? 우리는 數많은 옷을 만들기만 하여 쌓아두고 현명한 방법의 衣生活을 研究하지 않음은 우리의 生活의 運轉을 잃어버리게 하였다. 맞지 않는 流行과 실속 없는 옷차림이 過去의 우리의 衣生活의 病이라고 하겠다. 충고도 없고 反省도 없는 우리의 衣生活은 마치 큰 바다에 노도 主人도 없이 뜬 배같이도 한심하였다. 가끔 지각있는 이의 生活改善 云云은 한 때의 口呼로 돌아가고, 善은 惡에 지는 感을 갖게 하였다.

마침 5.16혁명을 계기로 모든 惡의 뿌리가 빠지고 그릇됨이 시정되어 가는 中이니 우리의 衣食住 生活도 바로잡아야 할 때가 왔다. 그리하여, 다시 口號에만 그치지 않는 新生活 運動이 展開되었고 新生活服 着用이 널리 認識되었다. 그런데, 新生活服에 對한 정의는 여러 가지로 表現되었다.

또, 各自의 생각대로 해석이 되어 때로는 적절한 條件을 具備한 우리 衣生活의 發展에 基礎가 되는 것도 있으나, 非合理的이며 非時代的인 것도 많이 볼 수 있었다.

新生活服의 탄생은 우리 衣生活의 根本的인 問題를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世界的인 衣生活 水準에 달하는 한 과정이기도 하다.

新生活服이란 글자 그대로 새로운 살림에 입혀질 옷이다. 따라서, 우리는 「새것」이란 改良된 새 시대에 잘 맞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意味에서 우리의 新生活服은 우선 우리의 환경에 맞고 경제적이면서 입어서 活動的이며 무리가 없는 時代的인 아름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간혹 世間에는 時代的인 아름다움은 무시하고 경제적이고 便하기만 한 옷을 新生活服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없지 않은 듯하나, 이 해석 方法은 오늘날에는 通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못 流行이라면 경박하고 허영에 찬 것으로만 一笑해 버리는 例가 많으나 流行은 그 時代相을 알리는 것으로 무시 못할 데가 있다. 또 流行은 그 힘이 폭풍과도 같아서 한번 지나가면 大小의 세력이 합쳐 큰 힘으로 끌고 나간다. 또, 그 힘에 휩쓸리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매력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流行이 미치는 큰 힘을 잘 利用하면 時代的인 감각을 살린, 우리 생활에 無理가 없는 좋은 成果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過去의 우리 生活의 無

理한 流行이나 옷의 制度에 하등의 異意없이 모순을 빚어 낸 衣生活에서 時代的인 조건을 具備하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生活 條件에 맞는 方向으로 움직이고 있는 現事實은 확실히 우리 衣生活의 發展이라고 하겠다.

或者는 화려하고 사치하던 옷들이 적어지므로 衣類文化의 退步로 생각하는 者가 있다면 그는 수박의 겉만 핥은 것으로 본다.

우리에 맞는 健實한 衣生活을 알고, 화려하고 가장 새 시대의 옷도 만들 수 있는 힘을 배양하여야 한다. 바른 길을 찾아든 우리의 衣生活은 現下 우리의 生活 條件에 맞추어 發展함은 勿論이고, 過去의 病的인 思考方式에서 떠나고 있는 現實은 큰 發展 段階라고 하겠다. 이 앞으로의 우리 衣生活은 過去와 같이 他人本位의 衣生活, 即, 自己 환경과 自己 行편도 모르고 남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한 무리한 衣生活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적절한 위치에서 입혀질 것이다.

더우기 그때그때의 옷의 使命을 알고 헛된 지나친 사치나 낭비를 앓고 능률적이고 內容 忠實한 衣生活의 發展이 보인다.

前서울大 師範大學 教授 金 英 玉 著
文 教 部 獎 學 官

洋

裁

洋裝 模造印刷 總400面

값 300 원

修 學 社 刊